

新年辭

새해가 밝았다. 격동과 파란의 임인년(壬寅年) 어둠을 뚫고 계묘년(癸卯年)의 첫 태양이 솟아올랐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다. 토끼는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 슬기로운 코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난, 남북-전쟁 갈등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지만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지난해의 잔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고질인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158명의 꽃다운 생명들이 길을 걷다가 희생됐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밝혀지지 않았다. 재난 안전망은 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뚝뚝이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가까스로 합의하고도 당리당략으로 정쟁만 일삼다 유족들의 호소에 지난해 21일에야 조사를 개시했다. 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7일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확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난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이번엔 꼭 마련해야 한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201동 건설 현장에서 신종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여섯 명이 사망했다.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가 불과 7개월 전이어서 시민들의 충격은 컸다. 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아끼려는 '빨리빨리 공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발주처·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등 안전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경제와 안보 전선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난해부터 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3고(高)에 허덕여 온 우리 경제는 올해 더 큰 위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 경제의 3대 축인 투자·생산·소비의 물론 수출마저 감소세다. 성장률 또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 위기, 다락같은 물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혹독한 빙하기가 우려된다.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인기 위협에 우리 군도 강력히 맞대응하면서 남북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내외 환경 악화로 우

한다. 협치가 실종되면서 취임 7개월이 넘도록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파성과 강성 팬덤에 기댄 불통의 정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의 본령은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와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다중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집단지성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고삐사위다.

4년째로 접어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암울한 터널을 조기에 벗어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실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7차 대우행의 기세는 여전하다. 공공 의료 시설과

37.7%로 전국 최저이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일당 독주 체제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방정부는 또다시 민주당 일색으로 꾸러지면서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와의 협치가 시급대에 올랐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주시가 6개월 내 해법 제시를 약속한 '5+1' 핵심 현안들은 절반의 성취에 머물고 있다. 복합 소공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그룹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17년 넘도록 답보 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상생·협치로 '복합 위기' 극복해 도약의 시대 열자

리는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권은 대결 정치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지난해 3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워 정치 입문 8개월여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후 소득주도성장-탈원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등을 잇따라 폐기하며 국정 전반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역대 최소 득표를 차로 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9석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 변신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인력부터 서둘러 확충해 올해를 코로나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고, 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는 사회 전반에도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자산·주거·일자리 양극화로 커진 불평등의 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으로 심화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의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 위기는 탄소제로 사회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새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회복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광주의 투표율은

해결의 기회를 맞았다. 반면에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합병에서 첫 설명회가 열린 했지만 특별법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해 길 길이 멀다. 예산 삭감에서 비롯된 광주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속의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전남도는 민선 8기 이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바탕으로 고층 우주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이끌어냈다. 또 에너지국가산업단지(나주) 및 농식품가후변화센터(해남)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신안)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립 의대와 혁신공항 등의 숙원 사업은 소득 없이 해를 넘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AI와 전력, 자동차 등과 연계한 한도체 특화단지를 시도 접경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초광역 협력과 상생으로 군 공항 이전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해 열악한 지방재정도 보완해야 한다. 올해가 마지막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활동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민주주의의 새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정치적 유동성이 커지고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광주-전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지만 대전환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꼬여 많은 토끼는 위험에 대비해 굴을 세 개나 파놓는다고 한다. 교토삼굴(狡兔三窟)의 지혜와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올해로 창사 71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일보보는 그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의 기수로써 접합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도약의 새 전기를 마련해 줄 힘과 용기를 쏟을 것이다. 심층적인 분석과 논평,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새해 아침,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12월부터 피어날 수선화, 나르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연유된 꽃 이름이다. 나르시스의 신화가 돌아갈 수 없이 비극적인 것은 나르시스의 그 지독한 사랑의 대상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르시스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호수에 얼굴을 비추는 영영 호수 속으로 빠지고 만다. 이 신화는 적잖은 질문을 남긴다. 나르시스가 사랑하는 '나'에게 아무도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가? 오직 '나'만을 향한 사랑은 자신을 절대적이며 항구적인 존재로 보며, 타자의 배제와 거부를 말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도 물결에 굴절하는 자신의 허상을 사랑한 나르시스의 자기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닐까?

나르시스의 모습은 현실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 관계 대신 단절, 상호성 대신 일방적 방식이 사대적 현상이라고 믿을수록 나르시스의 자기 사랑법은 자연스럽게 유효해진다. 이미 우리는 타자 없는 거울 속 세상에서 오직 '나'만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나르시스의 사랑은 끊임없는 자기 복제의 욕망이자 집착

두 가지 자기 사랑법, 사적이지만 공적인 이야기

이다. 그러나 거울을 통한 자기 복제인 '나'를 향한 사랑으로는 어떤 생명의 탄생도, 관계도 불가능한 것이다. 자기 이해와 인식은 타자에 대한 인식과 동시적이며, 상호적이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나의 밖에 타자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나'를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자기 복제가 아닌, 세상과 현실의 사태에 대한 미망 없는 응시 속에서 시작된다.

나르시스와는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호명된 82세의 아니 에르노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에르노는 프랑스의 노벨 수상자들 가운데서 유일한 여성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전체 수상자 119명 중에서 17번째 여성 작가이다. 에르노는 1940년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소읍의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가난하고 문맹인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열세 살 때 고향을 떠나서 사립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출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련된 교양'의 세계를 마주하게 된다. 이후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문학 교수 자격을 얻고 1977년부터 대학교수로 일했다. 에르노의 문학은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 온 주제들을 드러내는 '칼 같은 글쓰기'로 유명하다. 자신과 "오직 거리 두기를 통해 객관화하는" 방식으로 나르시스와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자신의 진실에 도달하고자 한다.

'신분 상승'에 성공한 에르노는 자신을 미화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으며 경험과 삶이 어떻게 부모의 가난,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진술한다. 중요한 것은 고통스럽게 억압된 '개인의 진실'이 곧 '사회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고통을 극복한 상황을 자신의 특별함으로 특권화하지도 않으며, 자기 중심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지도 않는다. 에르노가 자신을 만나려는 방식은 부모의 삶은 물론이고 자신이 겪었던 계급적, 문화적 차이의 현실,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지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부끄러움과 굴욕, 무력함 등을 묘사하여 계급적 경험에서 오는 고통을" 드러내는 용기와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의 경험과 삶에 대한 객관화 작업을 한다. 에르노의 부끄러움은 출신의 문제가 아닌, 자신이 운 좋게 '계급'을 이동했다는 성찰이다.

에르노는 작가의 책무를 '개인의 기억 속에서 집단의 기억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밑바닥 계층에 대한 억압이나 민중의 특별한 건강함과 위대함에 대한 맹목적 강변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인 것은 여전히, 그리고 항상 사회적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순수한 자아에 타인들, 법, 역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확신에서 나온다.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무력감과 분노가 있다고 해도 나르시스적 자기 복제의 사랑법을 자신과 타인에게 강요하지는 말자. 에르노의 말처럼, 상실과 고통을 위한 진실의 회복이 그 방식부터 진실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하여, 나와 연결된 '밖'의 진실을 잊지 말자.

無等鼓

일본서기(日本書紀)는 720년에 편찬된 최초 일본 역사서다. '일본'이라는 국명이 처음 등장하고 지배자를 '천황'으로 적고 있다. 워낙 설화적이고 작위적 기술이 많아 일본 학계는 일본서기에 대한 감식 능력을 기준으로 학문적 내공을 가늠하기도 한다.

일제 관련 학자들은 일본서기를 토대로 '임나일본부' (任那日本府) 설을 제기했다. 야마토(大和) 정권이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내용이다. 우리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임나일본부는 아라가야(阿曇)에 있던 가야(高句麗)의 외교·무역 관리 기관에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일뿐이다.

이병도 박사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 조를 들어 백제가 마한(馬韓)을 병합한 시기를 근초고왕 24년(369년)으로 봤고 공략 지역도 전남 지역 마한 잔읍(殘屯)으로 해석했다. 통설로 굳어진 마한 병합설은 1996년 북암리 3호분 96석실의 발굴로 깨졌다. 옹관묘를 주 묘제로 사용하던 영산강 토착 세력이 6세기 초까지 전통을 유지하며 독자 발전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일본서기에는 한반도 관련 기사가 많고 눈길 끄는 대목도 적잖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성왕이 50명의 병력을 이끌고 신라 관산성을 습격하다 승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일본서기에는 성왕이 관산성을 공략하던 태자 여왕을 위로하기 위해 가던 길에 기습을 당해 절명했다고 기술한다. 고작 병력 50명으로 관산성을 치러 갔을 까라는 의문을 해소해 주는 내용이다. 백제가 선진 문물을 일본 열도에 전한 내용이 수록돼 있기도 하다.

전라도 5000년 역사를 망라한 사서인 '전라도 천년사'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 남원의 옛 지명을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국'으로, 장수를 '반과국'으로, 해남을 '침미다례'로 썼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측 사서에서 유사한 내용을 인용했다면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를 겪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서기는 통째로 부정되는 금서다.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탓이다. 한 학자는 일본서기를 복어에 비유하기도 했다.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탈이 나는.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일본서기

공감의 중요성 그리고 황금률

지난해는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안전 불감증'은 더 이상 낮설지 않을 만큼 이제는 일반 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사고가 일어나면 대체로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이 더 피해를 입게 된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장 약한 고리부터 영향을 받는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아픔을 겪는 이들에 대해 막말을 하거나 폄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얼마 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진상 규명을 원하는 피해자 가족을 향해 차마 해서

는 안 될 말들을 버젓이 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랑하는 자식 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희생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다. 이를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 아닐까 싶다. 타인에 대한 배려, 또는 상황에 대한 헤아림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은 오해와 분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2023년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타인의 말과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광주지역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학원 강사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청산별곡'은 고려 때부터 전해오는 우리 고유의 시가(詩歌)다. 하지만 누구의 작품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처지인지, 민란에 떠밀린 농민의 처지인지, 혹은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어찌지 못하는 마음인지 추측만 있을 뿐이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가 누구였든 그다지 유복한 처지는 아닐 거라는 사실이다. 파산 지경의 몸시도 곤비한 처지거나, 어디 깊숙한 산속이나 외딴 바닷가목로라도 가서 그 삶을 견디어야 하거나. 그러나 망설이고 돌아보며 험사리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시정은 알 수 없어도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내면만은 숨이 막히도록 무겁게 와닿는다.

그뿐인가. 그는 저항도 분노도 토해 내지 못한 체 계 가슴만 치고 있는 사람이다. 시름겹고 눈물겨운 서러운 사람이다. 어디서 날아온 돌인지 맞아서 울고 운명에 운다.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그 앞에 놓여 있는, 미우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속울음이다. 삶의 고통은 난

'오'이 있는 풍경

데없이 날아온 돌처럼 피할 수 없으며, 짐대에 올라 아슬아슬 줄타기하는 광대처럼 위태롭기도 하거나 외아찌 푸른 솔이라도 한 잔 아니 마실 수 있구나.

인생은 본디 고해(苦海)라고 하지만 이토록 숨도 못쉬게 괴로운 것이라면 인류의 역사는 진즉에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소외와 권태와 적박함만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사랑은 꼭 딱딱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다면 질신했어 넘어지는 것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인류는 넘어지지 않고 살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배고픈 배를 먹고 목마르면 생물을 찾듯이 희망을 찾고 반전을 꿈꾸었다. 짐짓 만정을 부려서라도 살길을 궁리했으며, 억지웃음을 웃어서라도 숨통을 틔웠다.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리"

'청산별곡'의 고단한 탄식은 보다시피 그 사이사이의 휴지(休止)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복된다. 우리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뜻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르겠는 알맞은 후렴구 덕분에 구절 구절 팽팽한 긴장감을 문득 허물어지고 만다. 연과 연 사이에 징검돌처럼 놓여서 고통을 잊게 하고 또한 유예한다. 삶을 위로하고 흥취를 자아낸다. 물처럼 유유하고 가쁜한, 공처럼 탄탄하고 발랄한 후렴구의 반복으로 인해서다 '알리 알리 알라성...' 흐르는 듯 구르는 듯 '르'와 '오'의 때바침으로 이 답답한 패배자의 노래는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요 얼마간 세상에서 낙오된 듯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삶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힘없이 당하는 자의 입장이 되고 보니 저 '청산별

곡'의 화자처럼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안녕?"
"요즘 어찌 지내시느공?"
때마침 카톡이 울린다. 친구 K. 그의 문자에는 늘 '오'이 달려 있다. 낭랑한 콧소리가 새삼 반갑다. 문자에도 표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온도가 있어서 건너편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야기 끝에 그는 더 많은 '오'를 모서 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성. 기다려방. 내일은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에용~^^"
그의 '오' 덕분에 고통을 잊었음은 물론 기분까지 풀렸으니 그 마음 씀이 새삼 고맙다. '알리알리 알라성'에 서처럼 말끝에 '오'를 하나 더 붙여 놓았을 뿐인데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긴다.

'오'는 한글 자모의 여덟째 글자로 '이음'이라 읽는다. '알'이나 '알'에서와 같이 초성일 때는 음가가 없으나, '중'이나 '강'처럼 종성으로 쓰일 때는 바닷가의 물 돌처럼 단단하고 둥근 소리를 낸다. 앞에 있다고 으스스 대가나 빠지지 않고 뒤에 있다고 제 역할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존재만으로도 은근히 힘이 되는 사람이 있듯이 '오'의 자리가 그렇지 않다. 또 하나의 예극자로 불리는 '아리랑'에서도 '오'는 유쾌하고 발랄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물론 '르'도 함께). '아리랑' '스리' '스리랑' 하고 가만히 흥얼거리 보시라. 저절로 어깨가 들썩어질 것이다.

'오'이 있는 풍경, 그 여백의 자리에서 숨통을 틔우고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